

【중요】 나가사키 평화 마라톤 개최 방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2020년 11월 29일에 예정되어 있던 '나가사키 평화 마라톤'은 1년 뒤인 2021년을 목표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 평화 마라톤 실행 위원회에서 앞으로의 방침을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의 개최 계획을 일시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19 대책을 마련하여 대회를 연다하더라도 참가 주자 수를 크게 감축하고 관련 이벤트들을 축소할 수 밖에 없어 대회를 여는 목적인 '평화 전파', '교류 인구 확대' 등의 사업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 ② 코로나 19 대책 아래 대회를 열어도 감염 위험은 없어지지 않으며, 주자를 비롯한 대회와 관련한 모든 사람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
- ③ 본 대회는 나가사키에서 처음으로 여는 풀코스 마라톤 대회이므로 정상적으로 개최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코로나 19 대책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다만, 나가사키 평화 마라톤은 피폭 75주년 기념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음 단락이 될 '피폭 80주년 2025년도 개최'를 새로운 목표로 삼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대회를 기대하며 기다리셨던 분께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피폭 80주년에는 대회 개최를 실현하여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피폭지 나가사키에서 평화를 알리는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나가사키 평화 마라톤 실행 위원회
회장(나가사키 시장) 다우에 토모히사